

제5대 협회장에 송정섭사장 추대

회장 단임제, 예산 전년대비 25.1% 삭감

우리 협회 제5대 신임 회장으로 해외항공화물(주) 송정섭 대표이사가 선임되는등 2003년도 정기총회가 개최돼 금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이 확정됐다.

지난 2월 13일 회원 857명중 553명(위임 387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된 금년도 정기총회에서는 연임이 가능하였던 회장의 임기를 3년 단임제로 하고 임원중 부회장 및 이사의 수(數)를 각각 1명씩 증원하는 정관 개정에 따라 부회장 5명, 이사 21명 이내의 임원을 두기로 하였는데, 이는 지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각각 본회 부회장과 이사로 하여 지회와 본회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함이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경기상황을 감안해 지출예산을 긴축편성, 총 예산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25.1%(약 2억 1,700만원)를 감액한 6억4,800만원으로서 불요불급한 모든 지출예산을 최대한 감액편성했으며, 지난해의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을 승인했다.

우리 협회 김정민 전임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통합협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6년동안 대과없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의 협조였다”며, “복합운송업계의 위상제고는 국가나 협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 모두가 스스로 이루어가야 하며, 이를 위해 신임회장에게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새 회장으로 선임된 송정섭 회장은 “더 훌륭한 선·후배들이 많은데 회장으로 선임돼 기쁘기 보다는 송구스럽고 어깨가 무거우며, 항상 봉사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회원사의 권익과 사업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피력함과 아울러 “모든 일은 새로 선임될 회장단 및 임원과 협의하여 원만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김정민 전임회장에게 대한 공로패가 수여되는등 그동안 협회 업무추진에 공로가 많았던 고문·부회장·이사 10명 및 집행부(사무국) 임원 3명에 대한 공로패 수여도 함께 이루어졌다.

협회 새로운 임원진 출범, 첫 이사회 열어

2003년도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우리 협회 송정섭 회장은 부회장에 김인환(동보해운항공), 강성린(맥트랜스), 이우종(백스글로벌), 차미성(영탑), 김병진(태경해운항공) 사장 등 모두 5명의 부회장을 선임하는 외에 17명의 이사를 선임하여 지난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첫 이사회를 가졌다.

이 날 이사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3명의 상근임원은 모두 퇴임시키기로 함과 아울러 현재의 구성원으로 협회 사무국의 모든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한편 인원의 충원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2003년도 제2차 이사회인 이 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말 부산지회 임시총회에서 지회장으로 선임된 태경해운항공(주) 김병진 대표이사가 협회 부회장으로, 지회부회장인 창대종합물류(주) 정윤현 대표이사는 협회 이사로

선임되어 처음으로 동 회의에 참석하여 지회의 올해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종전의 운영·해운·항공·윤리분과위원회에서 윤리를 운영위원회로 통합함과 아울러 재무위원회를 신설키로 하여 운영·해운·항공·재무분과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였으며, 또한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해운이주화물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각 위원회 위원 선임은 회장단에 일임키로 했다. 한편 김정민 전임 회장을 새로이 고문으로 추대하였으며, 협회 사무국 사무실도 재구성키로 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작업에 들어갔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우리 협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협회 임원 명단

구분	성명	소속	전화	팩스	비고
고문	최인환	해외항공화물(주)	779-0744	779-0740	
"	정은구	(주)삼영익스프레스	710-6710	710-6789	
"	이상윤	대성해운(주)	325-1451	325-1452	
"	김정민	월손로지스틱스코리아(주)	3142-2000	337-5110	
회장	송정섭	해외항공화물(주)	779-0744	779-0740	
부회장	김인환	동보해운항공(주)	3702-9508	736-5205	
"	강성린	맥트랜스Intl(주)	3663-1025	3661-0385	
"	이우종	(주)백스글로벌	3140-0867	3140-0900	
"	차미성	(주)영탑	723-0731	723-3077	
"	김병진	태경해운항공(주)	051-469-7200	051-469-8095	
감사	윤원기	(주)대동종합물류	3142-7050	3142-8383	
"	홍성호	캐리향운(주)	3664-0303	3664-2770	
이사	정계성	(주)가아쉬핑	757-9661	757-9665	
"	양천구	남성해운항공(주)	335-7337(9)	323-7305	
"	이길남	대륙항공해운(주)	710-8888	706-0234	
"	박경호	대아트란스(주)	779-2345	779-2346	
"	강택구	대일해운항공(주)	757-0011	757-0101	
"	윤석우	두성해운항공(주)	780-8611	780-1504	
"	이현각	로이드해운(주)	3272-5123	3272-5160	
"	배창섭	범아해운(주)	757-4260	757-4265	
"	조희열	삼조해운항공(주)	757-7131	726-4413	
"	김영진	ABX해영코리아(주)	774-2441	774-0508	
"	김지일	(주)E.I코리아	3475-5781	587-5094	
"	남기영	천지해운(주)	3455-1777	3455-1771	
"	여경규	코스모향운(주)	717-0303	701-8588	
"	박종만	(주)티오피해운항공	774-0400	756-0660	
"	김종욱	팍스글로벌카고(주)	2657-6113	2657-6100	
"	김호길	(주)호성국제운송	2662-9531	2666-0130	
"	정윤현	(주)창대종합물류	051-466-1900	051-466-1977	

관세청, 적하목록제출 기간단축 관련 고시개정입안 예고

협회, 현행체제 유지토록 의견 제출

우리 협회는 보세화물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관세청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최근 관세청에서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해상화물에 대량살상 무기 등 대테러물품의 적재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CSI협정 시행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모든 화물에 대하여 현행 수출통관 절차를 개정기 위한 고시개정 입안예고가 있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하목록 제출시기를 현행 선박 및 항공기 출항의일 24시간전까지에서 해상의 경우 선적 24시간전, 항공의 경우 기적 6시간전까지로 변경할 예정이며 또한 출항적하목록 정정기한도 출항후 4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해상화물은 부득이

출항 24시간전까지 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나 타지역까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출항의일 자정까지 적하목록을 제출토록하고 미국지역 해상화물만 따로 정하여 출항 24시간전 까지로 규정토록 요청했다.

특히, 항공화물의 특성상 6시간전 적하목록 제출은 무리가 있으며 미국에서도 아직 시작되지 않은 사안으로 시행규정을 보아가면서 보조를 맞추도록 강조했으며, 적하목록정정신청 기일단축 또한 하주로부터 자료를 받아 정정신청을 하여야하는 복운업체로서는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대로 시행하여 줄 것을 덧붙였다.



2분기 협회연수교육 총9개과정 실시예정

5월중 해상/항공 부산교육

복합운송업계 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2003년도 우리 협회 연수교육은 해상포워딩단과반교육을 비롯한 9개과정으로 총 12회 실시될 예정이다.

2003년도 2/4분기 연수교육은 4월 8일부터 대하주영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워딩영업실무교육을 시작으로 4월 12일 C/S예절교육, 4월 21일 해상단과반, 4월 28일 항공단과반, 5월 29일 통신영어, 6월 2일 해상기초반 및 6월 17일 항공기초반교육이 각각 실시된다.

또한 부산지역 회원사 종사원을 위한 해상포워딩부산교육이 5월 19일, 항공포워딩부산교육이 금년에 처음 도입되어 5월 20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협회 사정상 하반기에 실시기로 순연되었다.

한편 1/4분기에는 포워딩실무통신영어교육(1.16~1.17,



3.4~3.5)을 2회 실시, 85명이 수강하였고 영업실무교육(1.24) 및 C/S예절교육(1.18, 3.8)에 각각 34명, 71명, 해상단과반(2.17~2. 21) 및 항공단과반(2.24~2. 28)에 각각 54명, 46명, 해상기초반(3.10~3.21) 및 항공기초반(3.24~4.4)에 각각 43명, 38명이 수강하였다.

2003년도 2/4분기 교육훈련계획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강료(원)	지원금액(고용보험)		비고
				우선지원	대규모	
포워딩영업실무	4.8	4	10,000	-	-	
C/S예절교육	4.12	4	10,000	-	-	
해상포워딩단과반	4.21-4.25	20	80,000	62,730	55,760	
항공포워딩단과반	4.28-5.2	20	80,000	62,730	55,760	
C/S예절교육	5.3	4	10,000	-	-	
포워딩영업실무	5.16	4	10,000	-	-	
해상포워딩부산교육	5.19-5.22	28	140,000	98,355	87,427	
항공포워딩부산교육	5.20-5.22	21	120,000	73,766	65,570	
해상포워딩기초반교육	6.2-6.16	40	170,000	115,092	102,304	
C/S예절교육	6.14	4	10,000	-	-	
항공포워딩기초반	6.17-6.30	40	170,000	115,092	102,304	



● 부산지회 정기총회 개최



우리 협회 부산지회는 지난 3월 7일 무역클럽(무역회관에서)에서 지회총회를 개최하여 부산지역 회원사의 권익옹호 및 친목도모 등을 위한 2003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지회 총회에는 부산지역 회원사(본·지사) 소속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지난 2월말에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선임된 부산지회 임원에 대한 소개 및 인사가 있었고 2003년도 주요 사업계획으로 △회원사간 친선도모 및 연수교육 실시, △협회 회원 배가 추진, △부산시, 해양부, 공항 및 세관 등과의 협력강화로 문제점 개선 및 업계지위 향상 등을 꾀하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는 우리 협회 송정섭 회장을 비롯하여 김정민 전회장, 차미성 부회장 등 회장단이 참석하였으며, 차창화 전임회장(해륙해운항공 부산장)과 이광태 간사(남성해상 소장)에게는 공로패를 증정했다.

한편 지난 임시총회에서 선임된 부산지회장(김병진, 태경해운항공 대표이사)은 우리 협회 부회장으로, 지회 부회장(정운현, 창대종합물류 대표이사)은 협회 이사로 선임됐다.

● 산자부, 물류비 인상에 제동걸고 나서

산업자원부는 최근 유류가 인상에 따른 해운 및 항공 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또는 신규 도입,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미국행 화물에 대한 화물목록 EDI 수수료 도입 등 각종 물류비의 인상이나 신규도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달 12일 산자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수출입물류 개선협의회 실무회의'에서 산자부 무역정책심의관의 주재로 무역진흥과장, 건교부 국제항공과, 해양부 해운정책과, 관세청 수출통관과 담당사무관 등 관련기관과 무역협회(하주협의회), 선주협회, 복운협회 등 관련단체 및 한진해운, 현대상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관련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4가지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열린 수출입물류개선협의회 회의결과 및 산자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 **해운 및 항공화물 유류할증료(BAF)인상 및 도입 문제**
 - 해상화물 유가할증료 인상에 대하여는 해운법 제29조 4항에 규정된 선하주간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인상폭을 결정하기로 함.
 - 항공화물 유가할증료 도입문제는 유가인상으로 인한 보전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되, 방식에 있

어서는 되도록 새로운 부대비 항목의 신설보다는 기존 운임(기본료)인상으로 충당하고, 도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주측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는 방향으로 건교부가 재검토하기로 함.

- ▶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상문제**
 - 도로건설 등 SOC부문에 대해서는 민자유치 방식보다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이러한 점을 기획예산처에 촉구하기로 함.
 - 화물차에 대한 우대조치 고려 필요성도 제기됨.
- ▶ **관세청의 보세화물 입출항관련 고시개정문제**
 - 우선 5월 1일부터 CSI시행에 필요한 미국향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기타지역 및 항공화물에 대해서는 미국관련 시행 결과를 보아가며 10월경 적용여부·방법 및 범위를 결정하기로 함.
- ▶ **미국향 화물에 대한 EDI전송 수수료 문제**
 - 새로운 제도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인정하나 가능한 새로운 항목 신설보다는 기존의 서류 발급비를 인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선사측에 권고하고, 도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하주사무국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함.



● 인천공항내 복운창고 건설 어렵게 돼

우리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내 복합운송업체 전용 항공화물창고 건설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에 따르면 화물창고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유치 방안과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방안이 있는데, 우리 협회가 직접 건설하기 위하여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이럴 경우 행정기간만 1년 이상 소요되고 우리 협회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부족한 화물창고 시설의 조속한 확보를 위하여 가장 빠른 건설 방법인 인천공항공사로 하여금 사

업을 시행토록 하고 설계 및 임대·운영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은 인천공사가 우리 협회와 협의하여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협회에서는 화물창고를 건설하기 위하여 2년전부터 건설교통부 및 인천공항공사와 수차례의 협의와 건의는 물론 투자희망업체를 모집, 투자금예치 및 별도법인설립 등 많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왔으나 관계당국의 정책 변경으로 우리 업계가 추진하던 제2의 복운창고 건설이 무산될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 창고시설이 필요한 복운업체는 인천공항공사가 건설한 시설을 임차·사용하여야 하며, 우리 업계가 직접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은 관세자유지역에 기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내·외 운임장기미납 무역업체 공개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

지난 3개월간 회원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합운송업체의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운임을 장기간 체납하는 무역업체를 공개하였다.

우리 협회는 회원사로부터 장기간 운임을 체불한 무역업체 및 해외포워더로부터의 송금이행을 하지 않는 해외

포워더 명단이 접수되면 해당 무역업체, 해당 외국포워더 및 해당국가의 포워딩협회에 일정기간까지 납부토록 협조요청 문서를 보내고 이에 대한 의견이 없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협회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 국내 장기미납 무역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운송일자	미수금액(원)
제봄상사	공승준	강동구 명일동 48 주양쇼핑센터 4011호	441-1727	2002. 8~10	5,539,188
진우산업	김유중	대전시 서구 도마동 93-51		2002. 4~5	3,556,494
석주무역	도종주	종로구 안국동 148 해영빌딩 902호	734-5206	2001. 6	1,267,850
올에드인기천테크㈜	송대건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1번지	031-988-2131	2002. 6~11	1,682,092
세광메디칼	정훈모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08-3	032-684-4072	2002. 3~9	20,773,014
대진태양	지일수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 708호	3775-2966	2002. 8	2,175,494
한국엠앤지	이상필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진목리 405-5	031-531-2591	2002. 10	577,470
삼스타코린	조갑진	동대문구 장안동 364-8 신아빌딩 201호	483-1253	2002. 11	2,383,449
아오이상사	김정준	서초구 서초동 1485-14 동암빌딩 지하1층	534-9883	2002. 11	600,683
컴팩	윤종민	마포구 연남동 567-11 IK빌딩 4층	322-6925	2002. 7~9	8,644,556
재명무역	김명순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31-2	053-634-6518	2000. 9	1,500,000
일진INC	임재환	강서구 등촌동 684-2 우리벤처타운 501호	3661-5466	2002. 8. 7	1,165,750
기전어페럴	최평흠	동작구 본동 48-12 태평빌딩 3층	2246-8711	2002. 8~9	362,790
HK인터내셔널	강태기	광진구 자양동 628-25 동원빌딩	453-4941	2003. 2	170,000



CSI 관련 미세관 신고대행료 너무 높아'

미 국향 화물 및 미국 항만에 기항하는 모든 화물에 대하여 선적지에서 선적 24시간전까지 미국세관에 화물목록 제출을 의무화한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Rule의 시행과 관련하여 선박회사(VOCC)가 NVOCC를 대신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그 비용(Cargo Declaration Data Charge)으로 B/L건당 미화 25불(US\$25)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선적 24시간전 적하목록 전송(EDI)과 관련하여 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TSA)에서는 B/L건당 25불을 부과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적하목록 전송 및 데이터 처리를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와 전산 시스템 투자에 따른 추가비용 보전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B/L Amend(Correction) 요청시 그 비용(Correction)으로 건당 40불을 징수키로 하여 국내 수출업체 및 복합운송업체(NVOCC or Freight Forwarder)의 경영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2월 25일 국적선사(한진해운, 현대상선)에 신고대행 Fee 및 Amend(C/A) Fee를 10불 수준으로 인하를 촉구하는 한

편 같은날 개최된 '미국행수출화물 24시간전 Rule Charge 도입 관련 대책협의회'(한국하주협의회)에 참석하여 이 비용의 인하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다.

인하 이유에 대해 우리 협회에서는 미국세관에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업무는 종전에도 있었던 사항으로 단지 제출시점이 입항전 48시간에서 선적전 24시간전으로 바뀌었고 별과금 부분이 강화되었을 뿐임에도 그 비용을 25불로 책정한 것은 제3자가 인식하기에도 너무 과도한 비용이므로 신고대행 및 Amend Fee는 각각 미화 10불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우리 협회에서는 CSI Rule 시행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그 내용과 AMS 체계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선사별로 그 차이는 있지만 3월 15일을 전후로 25불의 신고대행 Fee 부과에 관해 회원사에 안내하여 대비를 당부해왔다.



통관업 진입규제 폐지건의"

재정부 · 관세청에 관세사법 개정 촉구

통 관업을 취급할 수 있는 업종에 운송·보관 또는 하역업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관세사법을 개정하여 복합운송주선업도 통관취급(특례)법인 허가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통관업 진입규제 폐지건의서를 지난달 4일 재정경제부 및 관세청에 제출했다.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1980년부터 복운업체가 외국과 같이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의 개정을 수십차례 건의하여 지난 1998년 6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해 11월 관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계류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복운업자의 통관업 진입이 규제되어 있음을 지적, 복운업자의 통관업무 수행의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다.

특히, 새로 출범한 참여정부에서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국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국제물류와 통관은 서로 분리하여 논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우리나라 국제물류의 핵심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복운업자의 통관업무 수행은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감안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현행 관세사법 제19조(통관취급법인)제1항제1호 개정(운송·보관·하역 또는 복합운송주선을 업으로 하는 법인)하여 복운업자에 대한 통관업 진입규제를 폐지함으로써 복운업체가 국제운송과 통관업무를 동시에 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물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했다.

